

저자 김희훈 (오르비 닉네임: 바나나기차)

- 1994. 07 태어남
- 2010. 08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울산 성신고등학교 편입
- 2012. 11 2013학년도 수능 외국어영역 원점수 100점 (백분위 100%)
- 2013. 02 울산 성신고등학교 졸업
- 2013. 11 2014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B형 원점수 100점 (백분위 100%)
- 2014. 03 서울대학교 입학
- 2015. 11 군 입대^^

오르비 대표활동

- '33133에서 서울대에 합격하기까지' 칼럼연재
- 색시한(색다르고 시원한 한방) 수능영어 실천기출 검토위원
- 세모변(세상의 모든 변형문제) 검토위원
- SD 모의고사 검토위원
- T.O.P. 모의고사 검토위원

이메일 주소 : khh940728@naver.com

페이스북 주소 : fb.com/joshua.h.kim.71

진도표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I - 1 개념 □ 연1 - A □	연1 - B, C □ 연2 (1)~(5) □	연2 (6)~(10) □ 모의고사 1회 □	I - 2 개념 □ 연3 (1)~(5) □	연3 (6)~(10) □ I - 3 개념 □	연4 (1)~(6) □ 모의고사 2회 □	연4 (7)~(12) □ 연5 (1)~(5) □
Day 8	Day 9	Day 10	Day 11	Day 12	Day 13	Day 14
연6 (1)~(5) □ I - 4 개념 □ 연7 (1)~(5) □	연8 (1)~(5) □ 모의고사 3회 □	II - 1 개념 □ 연9 (1)~(10) □	II - 2 개념 □ 연9 (1)~(5) □ 연10 (1)~(10) □	연9 (6)~(10) □ II - 3 개념 □ 모의고사 4회 □	연11 (1)~(15) □	III - 1 개념 □ 연12 (1)~(5) □
Day 15	Day 16	Day 17	Day 18	Day 19	Day 20	Day 21
연12 (6)~(10) □ III - 2 개념 □ 모의고사 5회 □	III - 3 개념 □ 연13 (1)~(10) □	연14 (1)~(10) □ 연15 (1)~(8) □	III - 4 개념 □ 연16 (1)~(5) □ 모의고사 6회 □	연17 (1)~(5) □ III - 5 개념 □ 연18 (1)~(3) □	연18 (4)~(6) □ IV - 1 개념 □	IV - 2 개념 □ IV - 3 개념 □ 모의고사 7회 □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책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투자했을 때, 3주 안에 끝나도록 구성되어있어.

진도를 빨리 나가야하는 학생들은 한 단원 내의 진도를 빨리 나가지 말고, 다른 단원과 병행하도록 해. 예를 들어, I.유추하기와 II.계산하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말이야.

모의고사를 친 후에는 틀린 문제만 다시 풀고 디테이션 할 수 있도록!

Contents

– 진도표

– 축하해

0. 친해지기

1. 왜 이 책을 썼을까?	009
2. 영어듣기의 중요성?	011
3. 이런 학생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	012
4.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014
5.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016

I. 유추하기

1.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1)	019
– 연습문제 1	023
– 연습문제 2	025
2.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2)	030
– 연습문제 3	034
3.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긴 대화	038
– 연습문제 4	042
– 연습문제 5	046
– 연습문제 6	050
4. 상황유추	053
– 연습문제 7	054
– 연습문제 8	058

Ⅱ. 계산하기

1. 돈 계산 (1) - 정리하기	064
- 연습문제 9	068
2. 돈 계산 (2) - 10%의 법칙	078
- 연습문제 10	081
3. 돈 계산 (3) - 여러 가지 상황	082
- 연습문제 11	083

Ⅲ. 미리알기

1. 말의 목적(주제)	089
- 연습문제 12	103
2. 의견	106
3. 일치/불일치 (1) - 내용 일치	114
- 연습문제 13	123
- 연습문제 14	124
- 연습문제 15	127
4. 일치/불일치 (2) - 그림 일치	133
- 연습문제 16	136
- 연습문제 17	140
5. 1지문 2문항	142
- 연습문제 18	146

Ⅳ. 미리보기

1. 실전 풀이법 (1)	151
2. 실전 풀이법 (2)	158
3. 실전 풀이법 (3)	161

- 고마워
- Special Thanks to
- 정답과 해설

0. 친해지기

1. 왜 이 책을 썼을까?

쌤~ 영어듣기는 어떻게 공부해요?

이 질문은 내가 수험생일 때는 물론 학원조교로 상담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입시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때 등 수도 없이 들어본 질문이야. 이 질문이 결국 내가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분명 너희들도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걸 들어봤을 거고 혹은 너희들도 이 질문을 해봤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을 거고.

영어듣기는 당연히 많이 **들어보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듣고** 들릴 때까지 **듣고**,
딕테이션(**듣고** 받아쓰기)하면 돼.
취약한 유형들은 특히 많이 **들어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지. 나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

독해파트는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또는 스킵)을 알려주는 개념서들이 많은데, 왜 듣기파트에는 이런 뜬구름 잡는 **천편일률적**인 방법만 존재할까? 만약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학생들은 왜 끊임 없이 영어듣기 공부법에 대해 물어볼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번 영어듣기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듣자 이러한 의문이 점점 커져갔고 많은 고민을 했지.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아.

독해와 마찬가지로 듣기도 각 유형별로 평가하고 싶은 능력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공부법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즉, 무조건적인 듣기를 통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 결론을 내리자마자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좀 더 구체적이며, 논리적이고 세분화된 그런 방법을 말 이야.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를 분석했고 각 틀리는 이유에 대한 Solution을 찾았지. 이 틀리는 이유는 막연히 '이렇게 틀릴 수도 있겠지?'라는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수험생일 때의 경험과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라 많이들 공감할거야.

어떤 방법일까? 이 방법은 여태까지의 듣기 공부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야.
바로,

듣기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울 거야. 이 방법을 찾은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ㅋㅋ). 방법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 당혹감이 줄어들 거니깐 걱정 마. 혹여나 영어듣기를 잘 못하는 학생이 '이 방법이 나한테도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난 수능영어에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 역대급난이도로 손꼽히는 13, 14학년도 수능에서 모두 원점수 100점으로 백분위 100%를 받았어.* 그런 사람이 공부법이 만들었으니 중·하위권들에 잘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방법은 내가 실제로 쓴 방법을 그대로 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만든 방법이 대부분이고 내가 썼던 실전적 Tip이 조금 들어간 거야. 그 학생들 중에는 듣기를 3개정도 틀리는 학생들부터 많게는 7~8개를 틀리는 학생까지 있었어. 그러니깐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면 돼.

여기까지는 이 책을 쓴 이유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방법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처음엔 책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 단지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고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걸 보니 이 방법을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쉽게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터라 그러지 못했어.** 입대를 하고나서 이 방법을 책으로 만든다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실제로 시중에는 영어듣기 실전모의고사만 넘쳐나고 듣기를 위한 개념서가 없더라구. 또, 인강을 듣자하니 듣기치고는 너무 비싼 가격이고...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효율적인 듣기 개념서를 만들자! 내 책을 시작으로 더 좋고 더 효율적인 듣기개념서가 나오면 좋겠어.

* 자랑 미안미안~ㅎ

** 지금도 열심히 복무 중이지ㅋㅋ

2. 영어듣기의 중요성?

수능 : 국어 = 영어 : ?

위의 물음표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면 바로 ‘듣기’라고 답했을 거야. 그렇다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주변에 보면 1교시 국어를 망쳐서 멘탈이 깨지는 바람에 수능(또는 모의고사) 전체를 망쳤다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영어듣기에서 한 문제라도 애매하면 영어영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이 건 비단 중·하위권뿐만 아니라 상위권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타격을 크게 받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듣기는 쉽다는 생각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침 또는 점심에 잠시 듣기방송을 틀어주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런데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난이도와 중요성은 비례하지 않아.

난이도가 쉽다고 소홀히 하고 어렵다고 열심히 하다간 큰코다칠 거야. 왜 그럴냐구? 듣기는 배점이 2, 3점이고 독해도 마찬가지야. 독해에서 정답률이 30~40%인 문제를 틀리는 건 나도 틀릴 수 있고 남들도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아. 그런데 정답률이 높은 듣기를 틀리는 건 심한 타격을 입게 되지. 따라서 듣기는 다 맞춰야 해.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낮을수록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

* 그래! 바로 네! ㅎㅎ

** Nevertheless! ㅎㅎ 사실 난 주석성애자야 크크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3. 이런 학생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

우선 미안하지만 듣기를 10개 이상 틀리는 학생은 듣기의 기본적인 학습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 이 책은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듣기가 전혀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거든(ㅠㅠ).. 기회가 되면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쓰도록 해볼게.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 책을 보면 될지 알아보자.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각 분류 별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조금씩 달라.

1. 듣기를 5개 이상 틀리는 학생
2. 듣기를 3~4개 틀리는 학생
3. 듣기를 1~2개 틀리는 학생

듣기를 5개 이상 틀리는 학생들은 특정 유형을 틀리기보다 다양하게 골고루(?) 틀리는 경우가 많아. 듣기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지. 바로바로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깐.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므로 이 책을 따라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가장 성적이 잘 오르는 분류이기도 해. 이 학생들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길 바라.**

듣기를 3~4개 틀리는 학생들은 또 2가지로 분류돼

①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있는 학생

실수보다는 그 유형이 원하는 논리력, 사고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학생들이야. 그런데 논리력,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듣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성적이 오를 리가 있나!*** 대부분의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이 책의 앞단원에 있으니 앞단원에 집중하되 뒷단원도 소홀히 하지는 마.

② 틀리는 유형이 매번 달라지는 학생

덤벼대는 학생일 확률이 높아. 논리력과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집중력이 약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1~2개를 틀리는 학생과 같은 수준이야. 하지만 실수도 실력이니 인정하고,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줄 때 좀 더 유의하도록 해. 또 현재 틀리는 문제를 맞히기 위한 논리력과 사고력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하구.

* 안녕! 사실 주석성애자 + 설명요정이야. 부분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건 문장 전체를 듣고 뜻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단어, 단어를 듣고 조합해서 뜻을 생각한다는 뜻이야.

** '바라'와 '바래' 바른 표현. '바라다'는 어간 '바라-' 뒤에 어미 '-아'가 붙을 때 '바라'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국어영역에 나오면 개이득?)

*** 화난 거 아님(단호)

마지막으로, **듣기를 1~2개 틀리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장이 잘 들리는 편이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 하지만 긴장감*, 후반에 집중력저하, 특정 유형에 대한 징크스** 등으로 인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지. 또 독해의 빈칸추론처럼 듣기에도 고질적인 취약 유형이 있기도 하고. 이 학생들이 책을 사서보면 “아니 무슨 듣기를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설명해?”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주 독자가 중·하위권이라 그런 거니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볼 수 있도록. 그럼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특히, **시간이 부족해서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고 싶은 학생은 전체적으로 읽어보길 바라.** 듣기와 독해를 동시에 풀다가 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듣기 할 때는 듣기만 하라고 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아.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쓴다면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어도 절대 틀릴 수가 없거든. 연습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 필요는 없어.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들의 연습문제만 풀어봐. 그리고 III.미리알기, IV.미리보기를 잘 활용하면 독해하는데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겸손한 마음으로 볼 학생들은 보길 바라.

QnA

Q: 선생님~ 저는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데 유형별로 푸는 법인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ㅠㅠ

A: 좋은 질문이야!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학생들은 부분 부분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17문제 중 10문제 이상은 맞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틀린 후에 다시 들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 보다 잘 들리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야. 예를 들어, 1~2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같은 경우는 너무 급작스럽게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듣기가 끝나. 이 경우에도 ‘잘 안들린다.’라고 표현하지. 하지만 다시 들을 때는 대충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미리 알고 듣기 때문에 안 들리던 부분이 들리게 되는 거지.

이처럼 학생들을 관찰해 본 결과, 듣기가 정말 안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각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 책은 ‘부분적’인 것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요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물론, 듣기가 잘 안 되는 학생은 이 책과 함께 최소한의 듣기 연습을 병행해야 해.

* 평가원 주관 시험을 아직 쳐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를 거야.

** jinx. 영어로는 처음 보지?

4. 이 책은 이렇게 구성돼있어

목차가 나와 있지만 책의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는 게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아. 우선 크게 4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있어. 차례대로 Ⅰ.유추하기, Ⅱ.계산하기, Ⅲ.미리알기, Ⅳ.미리보기 라는 단원이야. 각 단원의 자세한 설명은 각 단원 도입부에 있으니 읽어보면 돼. 그렇다면 이 4개의 대단원을 통해 어떤 유형들을 배울까?

성적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틀리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돈 계산, 상황에 적절한 말 유형부터 대부분이 쉽다고 하는 일치/불일치, 언급유무 유형 등 대부분의 유형을 다룰 거야.

왜 쉬운 유형들까지 다루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해줄게.

너희들이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한다고 해보자.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1.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부터 숙지해야겠지. 두더지 잡기의 기본적인 게임 포맷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말 그대로 두더지를 잡는 것이니깐. 하지만 각 게임별로 추가적인 규칙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두더지 말고 폭탄을 잡으면 점수가 깎이는 규칙 같은 것 말야.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잘 숙지하고 게임을 해야 해.

2. 게임을 진행하다보니 두더지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나 폭탄을 잡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잘 관찰해보니 특정 위치의 두더지를 놓치는걸 알았어.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니 내가 왼손잡이라 최우측 상단의 두더지를 놓치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우측의 두더지는 잘 잡지만 반대로 왼쪽의 두더지를 잘 못 잡으니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지. 이것 말고도 개개인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 요지는 사람마다 취약점이 다르다는 거야.

3. 취약점을 찾아서 대비를 했지만 항상 모든 두더지를 잡고 모든 폭탄을 피하기는 힘들어.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손이 미끄러져서 실수 할 수도 있잖아?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게임을 진행했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 ‘손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방법이 있겠군.’과 같은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게임을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어.

단순한 게임을 가지고 너무 심오하게 설명했지? (ㄱㄱ) 다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너희들도 내가 단순히 시험에 대한 것만 말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덜 지루하다고 느낄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쉬운 유형을 다루는 진짜 이유를 알려줘야겠지? 이유는 두더지 게임을 잘 하기 위한 이유랑 비슷해.

* 아님말고 ㅎㅎ

첫째, 이 책은 영어듣기를 5개 이상 틀리는 학생들을 주 독자로 생각하고 쓰여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형들도 다루는 거야.

둘째, 너희가 잘하는 유형이 다른 학생들에게 취약 유형일 수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려운 유형을 정해서 그 유형만 다루면 어떤 학생들은 도움이 안 되겠지?

셋째,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위해서야. 쉬운 유형이라 해서 항상 다 맞을 수 없는 노릇이지. 혹여나 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개념이야. 그런 후 전체적으로 푸는 방법을 전략적,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지.

물론 모든 유형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는 않아. 한 단원 전체가 한 유형을 다루기도 하고, 한 단원 안에 쉬운 유형들을 모아서 다루기도 해. 믿고 잘 따라 와주길 바라.

* 이런 것을 영어로 vice versa 라고 표현해.

vice versa : 거꾸로, 반대로, 역도 또한 같음.

5.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

이 책은 3주안에 다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물론 너희들의 실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3주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이 책과 함께 기본적인 듣기 연습을 병행할 책이 한 권 필요해. EBS도 괜찮고, 아니면 이 책을 다 본 뒤에도 연습할 수 있도록 시중 듣기모의고사 문제집을 한 권 사는 것도 좋아. 단, 기출 문제집은 사지마. 중요한 기출 문제들은 연습문제에 다 수록되어있어.* 앞에서 내가

‘무조건적인 듣기를 통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했어. 이 말은 각 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매일 매일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 다시 듣고, 틀릴 때 까지 듣고, 딕테이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 듣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냐. 3일에 한 번은 듣기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 하도록 해. 이 책을 3주 정도 공부한다면 7회 정도가 되겠지? 모의고사를 풀 때 마다 배운 것들을 최대한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해. 단, 마지막 단원인 IV.미리보기를 끝내기 전에는 몇 개를 틀리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서히 성적이 오르기보단 완전히 다 배운 후에 한 번에 점수가 확 오르더라구.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3주 만에 듣기 실력이 향상 된다고? 약 팔고 있네ㅋㅋ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학생들이 국어 독서 파트 인강을 듣는 이유가 뭘까? 본질적인 독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지. 문제 유형에 맞는 풀이법을 배우기 위해서야. 마찬가지로, 나는 3주 만에 너희들의 본질적인 듣기 실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는 없겠지만 듣기 ‘점수’를 향상 시켜줄 수는 있어. 믿고 따라와 주길 바라.

* 이 책의 연습문제는 거의 기출문제로 이루어져있어. 많은 학생들이 독해 기출문제는 여러 번 풀지만 듣기 기출문제는 한 번 풀고 다시 보지 않아. 심지어 풀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있을까?

I.유추하기

이 단원에서는 유추하기 유형을 푸는 데 필요한 논리력을 키우는 연습을 한 후 실전적 풀이법을 배울 거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 걱정 말고 따라오면 돼. 간단하긴 하지만 이 단원에서 배우는 유형들은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니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자.

1~2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1 - 짧은 대화'

13~14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2 - 긴 대화'

15번에 해당하는 '상황유추'

이렇게 3가지 유형이야. 어때? 이 중 최소 한 유형은 취약유형이지? 그럼 어서 이 유형들을 차례대로 알아보자.

1.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 짧은 대화 (1)

이 유형은 시험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유형이야. 1~2번에 해당하지. 우선 왜 틀리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앞으로도 대부분의 유형을 다룰 때, 틀리는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Solution을 알아볼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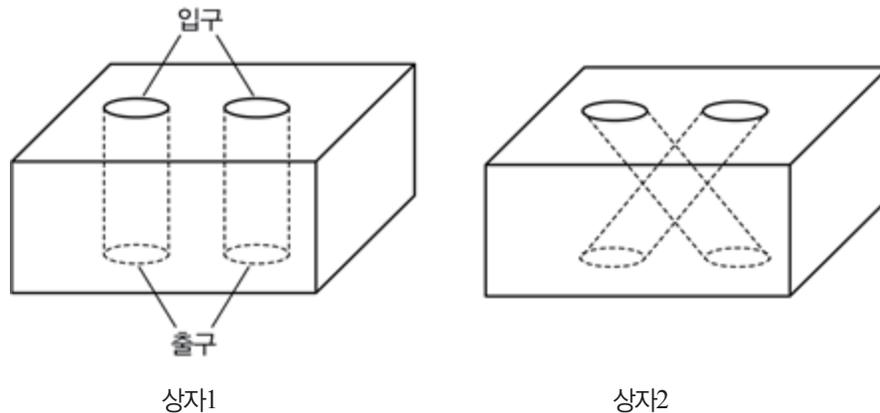
① 틀리는 이유

- A. 두 개의 선지 중에 고민하다가 오답을 체크함 (보통 이 경우 나중에 돌아와서 풀다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지ㅋㅋ)
- B. 긴장해서 제시된 대화를 잘못 들음 (빠르게 지나감)
- C. 대화를 잘 듣고 선지를 읽어나가면서 답을 찾는데! 미처 답을 찾기 전에 다음문제 방송이 나옴 ㅏ_ㅏ

어때? 틀리는 학생들 대부분이 읽으면서 공감하고 있을 거야. '땀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ㅋㅋ) 그럼 이제 Solution을 알아보자.

② 발상의 전환

잠깐~! Solution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생각해봐.



위와 같은 두 개의 상자가 있어. 상자 내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관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 그리고 임의로 한 개의 상자가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정해봐. 이 때, 왼쪽 입구에 공을 넣었을 때 어느 쪽 출구로 공이 나올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건은 입구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상자를 훼손하지 않는 거야. 다음 장에 답이 있는데 바로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

연습문제 2 (해설 p.14~23)

연습문제 1에서는 개별적인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5개의 선택지가 통째로 주어질 거야. 각각의 선택지의 앞의 말을 유추해서 적은 다음 듣기 파일을 듣고 답을 고르면 돼. 디테일하게 적지 않아도 돼.

예시를 들어줄게.

Ex)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4. 6월 B형)

- ① No, I don't have a computer.
: 너 컴퓨터 있어?
- ② Right, I'll call you when I'm done.
: 다하고 전화 할 거지?
- ③ Yeah, I saved it in my cell phone.
: 번호 저장했어?
- ④ Yes, I'll buy you a new cell phone.
: 새 폰 사줄 거예요?
- ⑤ Sorry, you've got the wrong number.
: 어? 영민이형 폰 아닌가요?

이 정도로만 유추를 하고 듣기 파일을 들으면 돼. 지금은 예제이니깐 스크립트를 보여줄게.

M: What's up, honey? Is something wrong?
W: The online banking system has suddenly stopped working!
M: Hmm.... Why don't you call the bank? Do you have the phone number?
W: _____.

정답은 몇 번이겠어? ③번이지?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번호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상황**은 같아.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어때, 1번보다 학습하는 데 부담이 덜 되지? 만약 1번을 풀지 않고 바로 이 연습을 시켰으면 힘들다고 했을 거야.* 총 10문제이니깐 마찬가지로 이틀에 나눠서 풀도록 해. 유추를 해 놓고 풀면 어떤 상황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대충 알고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기가 수월할 거야. 1번을 제대로 학습했다면 너희가 유추한 5개의 선택지 중 하나의 내용이 나올 거구.**

주의할 점: 귀찮다고 모든 문제에 유추한 걸 적은 다음 한꺼번에 듣기 파일 듣지 말 것!

* 큰 그림. Big Picture.

** 완전히 일치할 거란 말이 아니야. 예제에서 봤던 것 같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겠지.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5. 3월)

- ① No. I don't like the animal.
:
- ② Thanks. You saved my dog.
:
- ③ Okay. I'll take care of your pet.
:
- ④ Sorry. I don't have time to volunteer.
:
- ⑤ Of course. They need more volunteers.
: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5. 3월)

- ① Singing makes me feel better.
:
- ② I can't believe I passed the audition.
:
- ③ Just sing the song that you really like.
:
- ④ Please let me know how to be a good singer.
:
- ⑤ I don't think the song is good for the audition.
:

(3)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 6월)

- ① Good. I'll take the class.
:
- ② Sure. I'll bring my textbook.
:
- ③ Okay. You can leave a message.
:
- ④ You're right. The meeting was successful.
:
- ⑤ That's true. But I thought it was tomorrow.
:

2. 돈 문제 2 – 10%의 법칙

개인적으로 이 Solution은 꿀팁이라고 생각해. 몇몇 학생들은 이미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엔 없었어. 일단 문제를 내볼 테니 한 번 풀어봐. 어떤 문제인지 알려줄게.

\$100의 10% 할인가는?

여기서 숫자만 바꿀 거야. 주의할 점은 할인을 얼마나 해주는지가 아니라 할인된 가격을 써야하는 거야. 여기서 \$90 이 되겠지.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있으니깐 시간 잘 재서 풀어봐. 5문제이고 45초 줄게. 꼭 시간을 재서 풀어봐.

1. \$150의 30% 할인가는?
2. \$200의 15% 할인가는?
3. \$300의 25% 할인가는?
4. \$400의 30% 할인가는?
5. \$140의 15% 할인가는?

45초 끝~! 어때? 잘 풀었어? 내 예상은 2~3개야. 4개 또는 다 맞힌 학생들은 정말 잘했어~! 이제 시간제한 없이 풀어봐.

어떻게 풀었어? 앞의 예시는 암산으로 되는데 위의 문제는 암산으로는 조금 힘들었을 거야. 대부분은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150 \times \frac{30}{100} = 45 \Rightarrow 150 - 45 = 105$$

$$200 \times \frac{15}{100} = 30 \Rightarrow 200 - 30 = 170$$

$$300 \times \frac{25}{100} = 75 \Rightarrow 300 - 75 = 225$$

$$400 \times \frac{30}{100} = 120 \Rightarrow 400 - 120 = 280$$

$$140 \times \frac{15}{100} = \text{으음?}$$

사실 이 방법이 정석이긴 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약분하다 실수할 수도 있어. 특히 마지막 문제는 약분도 할 게 많고 해서 당황스러웠을 거야. 근데 이런 계산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대비를 해야 해. 물론 \$168의 23% 할인가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자, 이제 내가 썼던 방법을 알려줄게. 이 방법으로는 위의 5문제를 암산으로 30초면 풀 수 있어. 사실 30초 주려다가 45초 준거야.. ㅎ 나는 화살표 왼쪽에 있는 부분을 간단히 계산했어.

$$15 \times 3 = 45$$

$$20 + 10 = 30$$

$$30 + 30 + 15 = 75$$

$$40 \times 3 = 120$$

$$14 + 7 = 21$$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난 이것 10%의 법칙이라고 불러. 10%의 법칙이란 주어진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10%는 주어진 금액에서 0을 하나 빼기만 하면 돼.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1. \$150의 30% 할인가는?

\$150의 10%는 \$15지?

그러니깐 30%는 $15 \times 3 = 45$

2. \$200의 15% 할인가는?

200의 10%는 \$20, 5%는 그 반인 \$10야.

그러니깐 30%는 $20 + 10 = 30$

이제 좀 빨리 설명할게.

3. \$300의 25% 할인가는?

10%가 \$30이니 25%는 $30 + 30 + 15 = 75$

4. \$400의 30% 할인가는?

10%가 \$40이니 30%는 $40 \times 3 = 120$

10%의 법칙은 마지막 문제에서 가장 빛을 발하지. 비교해보자.

5. \$140의 15% 할인가는?

$$140 \times \frac{15}{100} = 21 \quad \Bigg| \quad 14 + 7 = 21$$

비교가 확 되지? 다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조금함에 약분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와서 당황하게 돼. 결국 뒤에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을 주게 되지. 반면에 10%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서 실수할 일이 없어. 짱이지? 더 연습 해보자.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좋아하나요? 저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고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죠. 엄마랑 같이 장보러 가면 항상 사달라고 떼쓰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서 좋네요. 초콜릿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좋아하나요? 저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 초콜릿은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초콜릿은 충치와 비만을 유발하는 것 외에 다른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카페인도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섭취량을 줄이면 카페인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지나치게 좋아하던 어린이가 초콜릿을 먹지 못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콜릿에는 배변을 억제하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어 많이 섭취하면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드물게는 편두통 환자의 증상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가슴 통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위의 두 글에서 ‘저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라는 문장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첫 번째 글에서는 T·S이지만 두 번째 글에서는 C·S인 걸 알 수 있겠지? 두 번째 글의 T·S는 ‘초콜릿은 충치와 비만을 유발하는 것 외에 다른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야. 이처럼 문장이 T·S인지 확인하려면 그 뒤의 내용도 조금은 들어봐야 해. 허물며 지금도 분명 ‘이제 마지막 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시작했는데 ‘그전에 사과하고 가야할 것 같네.’라는 말을 한 다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자 이제 진짜 스크립트를 보자.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is is principal Wilson. As you know, this Friday is the last day of our month-long item donation event. Thank you to those who have already participated. However, our involvement in the event has not met expectations yet, so we need to do more. The items we are still looking for are children's clothes, toys, school supplies, and books. If you have any of these items, please drop them off in the school cafeteria by Friday. Any donation, even just a single pencil, will be a great help. Don't forget that your small actions can make a big difference. I really encourage you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Thank you for listening.

앞부분을 언뜻 보면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목적인 것 같지?*** 하지만 바로 뒤에 However가 나오고 P·S 구조가 나와. 이 스크립트처럼 처음에 감사의 표현이 나오면 그게 주(主)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커. 예를 들어 ‘Thank you for applying for our company.’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과연 목적일까? 아니겠지. 지원 결과에 대해 말해주는 게 목적이겠지. 또 다른 예로 14학년도 수능 B형 4번 스크립트의 일부를 보자.

* 찌는 설계에 흐뭇.

*** 지금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나씩 뒤에 내용이란 같이 볼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하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Good evening. I'm Simon Peterson, the manager of King Yoga Center. Thank you for your patience during the renovation of our facilities including the shower area and lounge.

위의 말의 목적은 보수공사를 잘 기다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일까? 아니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적 이겠지. 가령, 보수공사가 끝이 나고 재오픈을 하는데 이벤트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일 수가 있겠지. 실제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아.

Good evening. I'm Simon Peterson, the manager of King Yoga Center. Thank you for your patience during the renovation of our facilities including the shower area and lounge. **Now we will focus on the parking lot because it's pretty small.** The construction for expanding the parking lot will begin next Monday and last through December. For the next month, the parking lot for this building will be closed. Once construction is complete, there will be enough parking spaces to accommodate 100 car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upcoming parking lot construction, please visit our homepage or refer to the notice on the bulletin board.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Thanks for your cooperation.

안타깝게도 이벤트는 안하고 주차장 공사를 한다네..

이렇게 해서 말의 목적(주제)의 **정답의 위치 A, B**에 대해서 살펴봤어. 수고했어~. (토닥토닥) 이제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고 **정답의 위치 B**에 해당하는 문제 중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된 두 문제를 풀 다음 마무리를 할게.

T·S문장인 경우 그 뒤에는 부연, 반복, 예시, 나열이, 아닌 경우는 뒤에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 앞에서 다룬 스크립트를 통해 확인해보자.

I'd like to tell you about this year's River Run. The Run will be held on Saturday, October 20th. (후략)

뒤에 River Run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므로 T·S라고 할 수 있어.

Today, we're going to move on to look at some functions of animals' tails. One of these is communication. (후략)

뒤에 'One of these~' 라는 표현을 통해 동물 꼬리의 기능의 예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T·S라고 할 수 있어.

행사·프로그램	기출년도	단체·기관	기출년도
Art Museum Fair	16. 6월	Community Closet	16. 수능
Summer Camp	15. 6월	Global in Action	15. 9월
Science Essay Contest	15. 수능	Amazing Art Lovers	14. 수능
Presentation Contest	예비시행	Lovely Cover	13. 수능
장학금 수여	14. 6월		
Future Lawyers' Internship Program	14. 9월		
Pacific Language Learning	13. 9월		
동·식물	기출년도	기타(장소)	기출년도
Bonobos	예비시행	Bamboo Pond Restaurant	16. 9월
Four-eyed Fish	14. 6월	Pine Tree Family Park	17. 6월
Tasmanian Tiger	14. 9월		
Sausage Tree	14. 수능		

깔끔하지? ㅎㅎ 각각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해 줄게. 우선 **행사·프로그램**과 **단체·기관**과 같은 경우 13학년도부터 16학년도 까지 꾸준히 나왔어. 따라서 이와 관련된 단어를 학습하는 게 필수적이지. 반면에 **동·식물**은 14년도에만 나오고 그 전과 그 후에는 안 나왔어. 14학년도에는 듣기가 22문제여서 일치성 판단 문제도 2문제였기 때문에 동·식물이 나온 것 같아.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기본적인 단어들은 알아보자구. 마지막으로, **기타(장소)**는 비교적 최근부터 나오게 된 걸 알 수 있지.

각 분류별로 정리된 단어는 연습문제 다음에 수록했어.

이렇게 해서 3가지 틀리는 이유와 그에 대한 Solution을 알아봤어. 요약해본다면 다음과 같아.

- A. 시야를 좁히지 마라
- B. 제한조건에 민감해라
- C. 단어 좀 외워라

이제 연습문제로 넘어가서 배운 것을 체화시켜 보자.

내용일치 단어정리

앞에서 일치성 판단의 대상을 분류해봤어. 그 대상별로 기출된 단어들을 정리했으니 이 단어만큼은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

① 행사·프로그램

advance to the final	결승에 진출하다
annual	매년의, 연례의
↳ every 2 year	2년에 한번
applicant	지원자
application	지원서
apply	지원하다, 적용하다, (로선 등을) 바르다
↳ apply to	~에 지원하다, ~에 적용하다
↳ apply for	~에 지원하다
audience	관객
available	이용 가능한
booking	예약
career fair	직업박람회
committee	위원회
compete	경쟁하다
consist of	~로 구성되다
↳ be comprised of	~로 구성되다.
consideration	고려사항
course	강좌
deadline	마감일
entrance fee	입장료
evaluate	평가하다
exhibition	전시회
facilities	시설들
fair	박람회
graduate	졸업생
guest speaker	초청 연사
have a good command of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다 ex) You have a good command of English!
institute	기관, 협회

4. 일치/불일치 2 – 그림일치

그림일치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 유형이야. 이 유형을 틀리면 친구들이 “넌 눈이 없냐? ㅋㅋ” 라고 놀리기도 하지. 근데 틀리고 나면 ‘그냥 실수’래. 이게! 문제인거야. 듣기를 틀리면 대부분 “으 ㄱ_ㄱ 듣기 실수했어... 듣기 때문에 등급 내려갔어. ㅠ_ㅠ” 이런단 말이야. 왜 실수를 했는지 파악하려고 안하지. 그러니깐 따로 대비도 안하게 되고 틀리는 걸 반복하지.(ㅂㄷㅂㄷ) 너희들이 틀리는 이유를 알려 줄 테니 잘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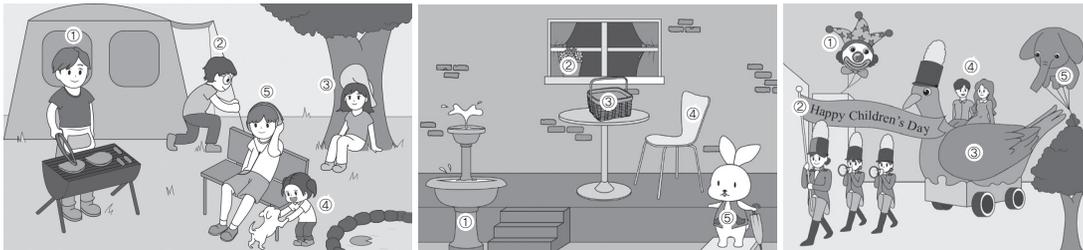
① 틀리는 이유

- A. 한 선택지에 일치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부만 판단하고 넘어가버림
- B. 어휘와 표현을 모르거나 헛갈려함

기본적으로 내용일치와 비슷한 이유로 틀려. 하지만 세부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다른 점이 있어. 자세한 건 Solution에서 알아보자!

② Solution

- A. 그림일치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 처음 들어보지?



사람이 나오는 유형, 사물이 나오는 유형, 사람과 사물이 둘 다 나오는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어. 이런 것을 생각해 본 학생이나 선생님은 별로 없을 거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을까? 각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야.

먼저, 사람이 나오는 유형을 보자. 사람이 나오는 유형에서는 **위치, 자세, 행동, 복장**에 유의해야 해.

여기서 **위치**는 그림 상 절대적 위치와 그림 내 상대적 위치를 말해. 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절대적 위치는 그림의 좌측 위·아래, 우측 위·아래, 중간을 말하고 상대적 위치는 ‘연못의 왼쪽’과 같은 위치를 말해. **자세**는 사람이 서있거나, 앉았거나, 누워있거나, 매달려있거나 하는 것을 말해. **행동**은 말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고. 마지막으로 **복장**은 모자, 우의, 헤드폰, 특별한 무늬의 옷처럼 눈에 띄는 것만 보면 돼.

5. 1지문 2문항

16~17번에 해당하는 이 유형은 너희들에겐 익숙할 거야. 그런데 나처럼 2013년도 수능, 2014년도 수능을 모두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낯설었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유형이었거든. 이 유형은 많이 틀리지는 않아. 그 이유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두 번 들려주기 때문이야. 한 번 들을 때 한 문제씩 풀어도 되고, 놓친 부분은 다시 들으면 되니깐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 유형을 한 번만 듣고 푼다는 거야. 한 번만 듣고 독해로 넘어가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80초라는 시간을 독해에 더 투자할 수 있어.* 짧은 시간 같지? 80초면 쉬운 독해문제 2~3개는 풀 수 있는 시간이야.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나한테 독해를 배운 학생들은 적어도 2문제는 풀더라구. 또한, 나중에 IV.미리보기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시간이 모이고 모이면 8분이라는 시간이 돼. 8분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지.

쌤! 빨리 한 번에 푸는 방법 알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진정해 진정해. 그전에 III.미리알기 - 1.말의 목적(주제) 개념을 다시 훑어보고 와. 89p야.

훑어보고 왔니?

Yes / No → 혼날래? 얼른 하고 와!

자, 복습을 하고 왔다면 이제 식은 죽 먹기야. 1지문 2문항의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나올 때에는 16번에만 신경쓰고 답이 나오면 17번에 집중하면 돼.

말의 목적(주제)
나열

어때, 쉽지? 그럼 실제로 그런지 문제를 통해 알아보자.

* 2016학년도 수능 기준이야.

3. 실전 풀이법 종합 (3)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① 언제 미리 볼 것인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미리 볼 지에 대해 배웠어. 이제는 언제 미리 볼 지에 대해 배워보자.

우선,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자.

- ① 표지를 넘기라는 방송 후 듣기 안내 멘트가 나오는 동안의 시간
- ② 각 문제와 문제 사이의 시간
- ③ 문제의 답을 구한 직후부터 다음 문제 시작까지의 시간
- ④ 1지문 2문항 유형을 두 번째로 들려주는 시간

①의 시간은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40초 정도 돼. 이 시간 동안 1~3번, 13~15번의 선택지를 미리 보면 돼. 다 봐야한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는대로 보면 돼. 처음에는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숙달되면 빠르게 될 거니깐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 13~15번은 이 시간에 다 못 봐도 상관없어~ ②의 시간에 보면 되니깐 말이야.

②의 시간은 문제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 13~17초니깐 평균 15초라고 잡으면 17문제의 사이사이마다 총 16번, 즉 4분의 시간이 있는 거야. 4분이라는 시간이 얼마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쉬운 독해 몇 문제를 풀 수 있어.

쌤, 그런데 1번과 2번 사이와 같은 경우는 답을 고르는데 시간이 들지 않을까요?

아냐. 우리가 K·W를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I·유추하기에서 논리력을 키워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 온 학생들은 듣기가 끝나는 동시에 답을 체크할 수 있어. 만약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꼼꼼히 학습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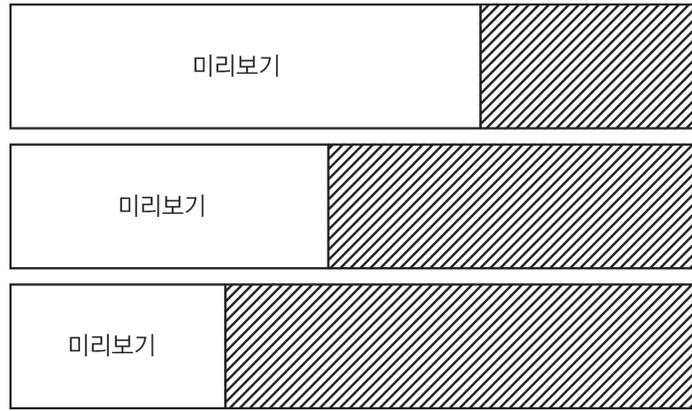
그럼 이번에는 ③의 시간을 알아볼까? 이 시간은 우리가 III·미리알기 단원에서 배운 유형들과 관련이 있어. 3번에 해당하는 말의 목적, 4번에 해당하는 의견은 정답의 위치가 앞부분에 있어. 따라서 정답을 찾은 직후에는 미리 보기를 하면 돼.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3번은 55초, 4번은 45초의 시간이 남아. 이 뿐만 아니라 그림일치, 내용일치, 언급유무, 표 등의 유형들 중에서도 답이 먼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렵잡아 계산해도 2분이 넘어.

마지막으로 ④의 시간을 알아보자. 스크립트를 한번 들려준 이후부터 두 번째 들려주고 16번 문제가 나오기 직 전까지의 시간을 측정해봤어(16~17번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은 포함을 안 시켰어. 어차피 학생들은 그 시간에 독해로 넘어가있으니깐). 마찬가지로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1분 20초정도가 돼.

이제 ①~④의 시간을 모두 더해볼까? 40초+4분+2분+1분 20초 = 8분

이 시간이 8분이나 된다는 걸 알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시간에 대해 분석해서 듣기법을 생각해 본 선생님들은 얼마나 있을까? 이 책을 선택한 너희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고마워!

이 8분이라는 시간동안 1~3번 → 13~15번 → 9~11번 → 16~17번 의 순서로 미리보기를 하면 돼. 너희들이 속달하면 할수록 미리보기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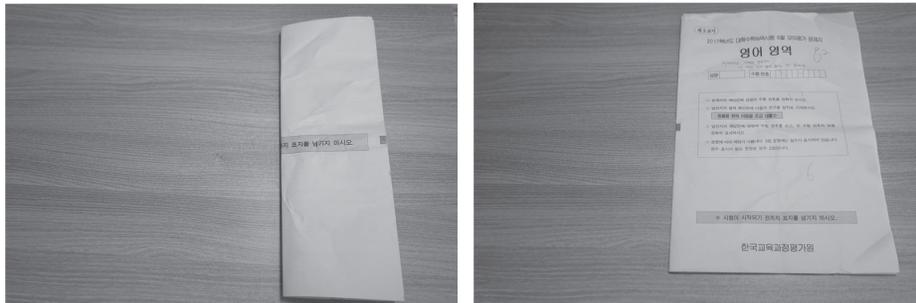
전체 잉여시간 (약 8분)

위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독해를 푸는데 써야지! 근데 무턱대고 18번부터 풀지 마. 비연속적으로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지. 일치문제가 대표적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상관없어. 나간 그 다음에는 너희들 각자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을 풀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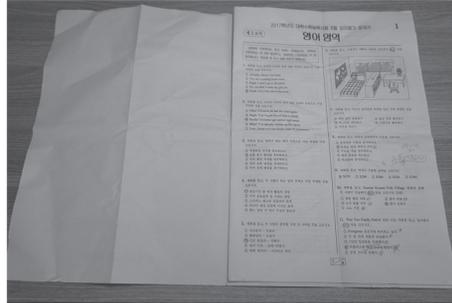
② 시험지 보는 방법

이번에는 앞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거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으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읽어 나가면 돼. 시험지를 가지고 보는 게 이해가 잘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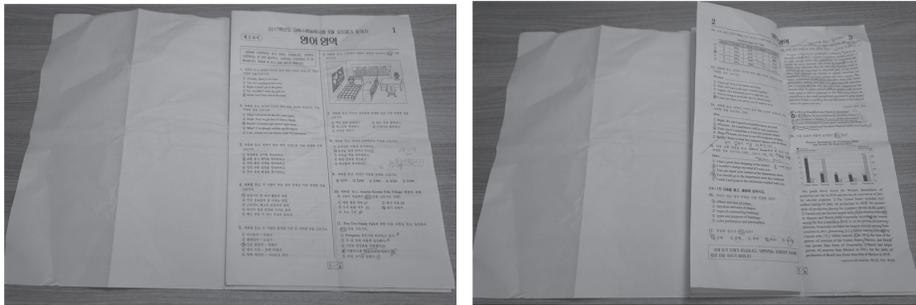
① 시험지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반을 접었다 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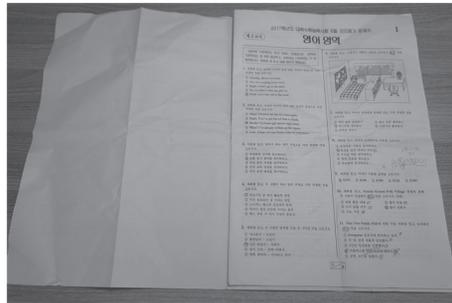
② 표지를 넘기라는 방송이 나오면 표지를 넘긴 후 1~3번 미리보기를 해.



숙달된 학생들은 1~3번을 끝내고, 아래와 같이 표지 뒷면과 1페이지가 펼쳐진 상태에서 1페이지를 반으로 접은 후, 13번부터 미리보기를 하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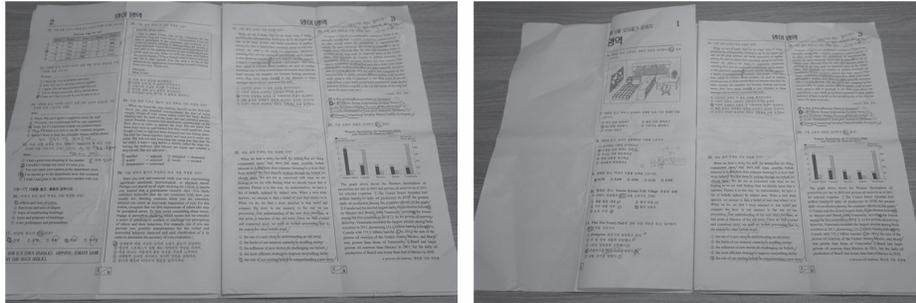
③ 미리보기를 하는 데 3번 문제가 나오면 다시 시험지를 편 후 3번을 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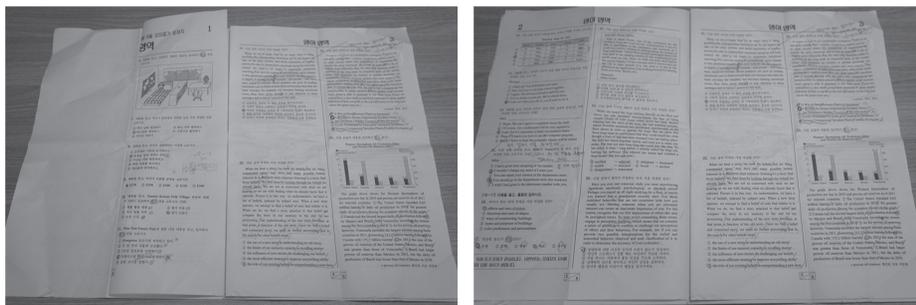
앞에서 배웠다시피 3번의 목적문제는 앞부분에 정답의 근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3번의 정답을 체크한 후에는 또 1페이지를 접어서 미리보기를 하면 돼.

④ 이렇게 15번까지 미리보기를 끝내면 앞장으로 돌아와서 4번부터 풀어.

문제를 푸는 데 확실한 답이 나와서 더 들을 필요가 없을 때와 문제와 문제사이의 시간을 활용해서 9, 10, 11번을 차례대로 미리보기하면 돼. 이때는 아래와 같이 시험지를 접도록 해.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다 나오도록 펼친 상태에서 2페이지를 반으로 접으면 돼. 이렇게 접어야 ⑤를 하기 쉬워.



⑤ 9~11번 미리보기 또한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아마 앞장의 문제를 푸는 동안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접힌 부분을 팔랑거리면서 16, 17번을 미리보기를 하면 되겠지?



⑥ 이 과정을 듣기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반복해서 숙달시키도록 해. 우리가 총 봐야할 선택지는 9번 계산문제를 빼고 총 10문제, 50개야. 후하게 한 선택지당 2초가 걸린다고 생각해도 100초, 1분 40초 밖에 안 걸려.*

혹여나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나와서 20초 정도 더 소요됐다고 해도 2분이야. 그렇다면 우리 전체 잉여시간인 8분에서 2분을 뺀 6분만큼을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애개? 고작 6분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독해를 제대로 배운 학생이라면 6분이라는 시간은 쉬운 독해 문제를 6문제 이상 풀 수 있는 시간이야. 다음에 독해에 대해 글을 쓸 기회가 있으면 쓰도록 할게. 그리고! 적다고 생각해도 6분이 어디야. 안 그래? 듣기 시간에 듣기만 해도 틀리던 학생이 듣기를 다 맞히면서 6분의 시간이 남는다는 건 엄청난 발전이야.

* 2초가 별로 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의외로 2초란 시간은 한 선택지를 보기엔 충분히 길어. 키워드만 확인하면 되니깐. 그리고 언급유무 유형도 2문제라 10개의 선택지는 각 2초면 정말 후하게 잡은 거지.

고마워

유명한 강사도 아닌 나의 책을 믿고
사서 끝까지 풀어 준 너희들에게 고맙
단 말을 전해주고 싶어, 그리고 정말
수고했어, 책은 끝이 났지만 듣기는 꾸
준히 듣고 연습해야해, 감을 잃은 것
같으면 책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구,
또 듣기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있거나,
공부하는 데 지치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럼 안녕~!

연습문제 3 해설 (문제 p.34~37)

빠른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② (5) ① (6) ④ (7) ⑤ (8) ④ (9) ④ (10) ①

(1) 정답: ①

- ① They'll be done in an hour.
- ② They were ready yesterday.
- ③ Let's see if they're my pants.
- ④ I tried, but I couldn't fix them.
- ⑤ They'll go shopping tomorrow.

상황/주제: #수선, #말긴 일

스크립트:

M: Hello, Ms. Johnson. Can you fix these pants? I want to shorten them two centimeters.

W: Sure, Kevin. I can fix them after I finish this work.

M: Okay. When are they going to be ready?

W: _____

미리보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문제야. ①번과 ②번은 시제만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 놓아야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아. 만약에 미리보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부분이 휘리릭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말인 “When are they going to be ready?”만 제대로 들었다면 ‘②번(어제 완료 되었어요.)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짹짹하게 넘어가야하지.

막간어휘 #1: referee vs judge

referee: (스포츠 경기의) 심판

judge: 1. 판사 2. 심판, 심사위원

둘 다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referee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 judge는 판사, 심사위원 쓰인다고 알고 있으면 돼.

cf. 배심원: juror, jury

막간어휘 #2: terrific vs terrible

terrific: 아주 좋은, 멋진, 훌륭한

terrible: 끔찍한, 소름끼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정반대이니깐 헷갈리면 큰일 나!!

7. Don't worry. I can reserve the seats, right away.

해석: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자리 예약할 수 있어.

이 선택지는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해봤어. 두 상황 모두 선택지의 화자가 자리를 예약해야 하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상황이야. 차이점은 두 사람의 관계야.

첫 번째 상황은 친구사이야.

M: 현정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W: 왜 그래? 급한 일이야?

M: 기차 자리가 두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두 자리를 예약해야 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W: Don't worry. I can reserve the seats, right away.

두 번째 상황은 항공사직원-고객이야.

M: 비행기를 놓쳐서 바로 다음 비행기를 타려해요.

W: 그렇군요. 몇 자리가 필요하시죠?

M: 두 자리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 꼭 가봐야 해요.

W: Don't worry. I can reserve the seats, right away.

(9) 정답: ①

대단원 소개 3번

T	B	15 × 1	-20%
	S	60 × 1	-10%
W	R	0	
	G	1	

이번 문제에서는 -ty와 -teen을 잘 구별해야 해. fifteen을 fifty로 듣고 계산했다면 답이 틀리게 돼. 또 한 가지의 함정이 있었어. 바로 'I'll take it, too.'의 too야. too를 two로 듣고 계산했다면 마찬가지로 답이 틀리게 되지. 내가 이 문제를 변형하면서 선택지 변형 또한 공들여서 한 것을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했다면 오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오답들 또한 선택지에 모두 있어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조차 모르게 구성했어. 잔인하지? ㅋㅋ

	fifteen	fifty
too	① \$66	② \$94
two	③ \$120	④ \$148

그리고, 여기서 \$15의 20%를 계산하는데 분수식을 썼다면 반성하도록! 우리가 배운 10%의 법칙을 쓰면 바로 \$12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M: Hello, how may I help you?
 W: I'm looking for a tie for my husband.
 M: Well, you've come at the right time! We're giving a ten to thirty percent discount on ties.
 W: That's great! What's the hot item these days?
 M: This blue one is really popular. The tag price is fifteen dollars, and we offer it at a twenty percent discount.
 W: Okay, I'll take it.
 M: Good choice, ma'am. Do you need anything else?
 W: Let me see. How much is that tie with stripes?
 M: It's a fairly new design. So there's only a ten percent discount from the sixty dollar price.
 W: It seems a bit expensive, but I really like it. I'll take it, too.
 M: Great. Anything else?
 W: No, that's all. Can you wrap them together, please?
 M: Regular wrapping or giftwrapping? Regular wrapping comes with no charge, and giftwrapping is one dollar.
 W: I just want regular wrapping.

(14) 정답: ③

H 4.5×10	8	}	=20%
C 1.5×10	8		
Ch 3.5×2			

이 문제에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세 가지야.
 첫 번째, 햄버거와 콜라를 따로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4.5 \times 8) + (1.5 \times 8) + (3.5 \times 2)$$

수량이 같은 경우엔 같이 계산하면 편하다는 것을 Tip으로 알고 있으면 돼.

$$(6 \times 8) + (3.5 \times 2)$$

두 번째, 분명 여자가 받을 거스름돈의 액수를 물어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불할 금액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발문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지?

세 번째, '20% discount'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분명 '20% discount coupon for the next time you visit.'이라고 했어. 이번이 아닌 다음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주었으니 할인을 하면 안 돼.

	No discount	20% discount
거스름돈	③ \$45	⑤ \$56
지불할 금액	④ \$55	② \$44

M: Welcome to DBJ Hamburger! How can I help you?
 W: I want to order 10 hamburgers and 10 cokes. Can I have price information?
 M: Of course. We charge \$4.5 on one hamburger and \$1.5 on one coke.
 W: That sounds reasonable.
 M: We also offer children set. It includes one hamburger and one drink. It's little bit smaller. Instead, it's cheaper. It's \$3.5 per set.
 W: Oh really? Then, I like to change 2 hamburgers and 2 cokes into 2 children sets.
 M: Okay. I'll change the order. Since the total is more than \$50, we offer 20% discount coupon for the next time you visit.
 W: Thank you. Here is \$100.

연습문제 12 해설 (문제 p.103~105)

빠른 정답

(1) ② (2) ③ (3) ② (4) ① (5) ④ (6) ① (7) ⑤ (8) ④ (9) ① (10) ①

(1) 정답: ②

W: Do you remember the panda in the famous movie Kung Fu Panda? Thanks to the cute character in the movie, people have come to love this animal even more. Unfortunately, the population of pandas has been falling for decades. One of the reasons is that many of the pandas' forests have gone. They've been cut down to make towns. Another is that pandas are suffering from a shortage of food. Bamboo is pretty much the only food the panda eats. But it's predicted that nearly all the bamboo in the pandas' habitat could disappear by the end of this century because of global warming. Panda lovers say it's time to help the pandas.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C·S를 이용하는 거야. ④번(영화가 판다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만들어진 선지야. 어설프게 '앞의 내용만 들어도 풀 수 있어.'라는 말만 믿고 풀면 C·S가 T·S인 줄 착각하고 ④번을 선택하고 넘어가 버리겠지. 개념에서도 배웠지만 T·S는 상대적인 거야. 뒤에 'Unfortunately,'가 나오니 뒷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해. 이 부분이 T·S인 거지. 왜냐? 뒤에 'One of the reasons~'가 나오면서 부연 설명을 시작하잖아.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뒷부분에 나오는 부연설명에서 사용된 단어를 이용하는 거야. T·S를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K·W인 '판다'가 없는 선택지 임에도 불구하고 'forest', 'cut down'을 듣고 ③번(무분별한 삼림 개발의 위험성)을 고르는 실수를 할 수 있어. 엄밀히 말하면 실력이지.

(2) 정답: ③

M: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is is Ben Jenkins,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As you know, a special event is taking place to celebrate Teacher's Day next week. If you haven't written a thankyou card to your teachers yet, please take time to do it.** It's easy. Postcards are available in all the classrooms and in the student council office. Just take a postcard, and write a note expressing gratitude to your teacher. When you're done, drop it in the box at the student council office. We'll take care of the delivery for you! Your small gesture will make your teachers happy. Thank you for listening.

②번(스승의 날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하려고)은 매력적 오답이야. 'teacher'가 C·S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 T·S에 언급되기 때문이지. 하지만 T·S가 '아이디어 공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 엽서'에 관한 내용이니 앞의 개념을 잘 학습한 학생들은 틀리지 않았을 거야.

(3) 정답: ②

W: **Fall is giving way and winter is around the corner. As the seasons change, so should your skincare routine. I'd like to make a few simple recommendations for you to keep your skin in good condition during the winter.** First, a long hot shower on a cold winter morning sounds great, but it can strip the natural oils from your skin. So, turn down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and don't stay in the shower too long. Second, the cold air outdoors and the hot air indoors in winter dry out your skin quickly. Apply lotion or cream to your face and body as often as you can. It will create a protective barrier. Lastly, don't forget to moisturize your lips and hands. The skin on these parts is more easily affected by harsh weather. I hope these tips work for you.

T·S를 듣고 답을 바로 선택했으면 무리 없이 정답을 맞혔을 거야.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듣다보면 'dry out', 'lotion', 'moisturize'라는 단어가 들려서 결국 ③번이나 ⑤번을 고르게 돼. 후반부의 단어를 이용해 오답 선택지를 만든다는 것! 명심하길 바라.

(8) 정답: ⑤

- ① 11월 6일에 개최된다.
- ② 영화감독이 관객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
- ③ 오후 6시부터 팝콘과 음료가 제공된다.
- ④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다.
- ⑤ 수익금은 주민 체육 시설을 보수하는 데 사용된다.

M: Good evening, everybody. Waterfront Town Movie Night is a week away! It'll take place on Friday, **November 6th**, from 6 p.m. to 9 p.m. The awardwinning movie, A Happy Family, will be screened in Town Cinema. The **director** of the movie, Allen Jones, will meet the audience before the movie begins. Popcorns and drinks will be served **from 6 p.m.** and the movie will start at 7 p.m. People of **all ages** are welcome, so bring your friends and family together. Tickets are \$20 each. The profit of this event will be used to **renovate** Waterfront Children's **Library**. Thank you for list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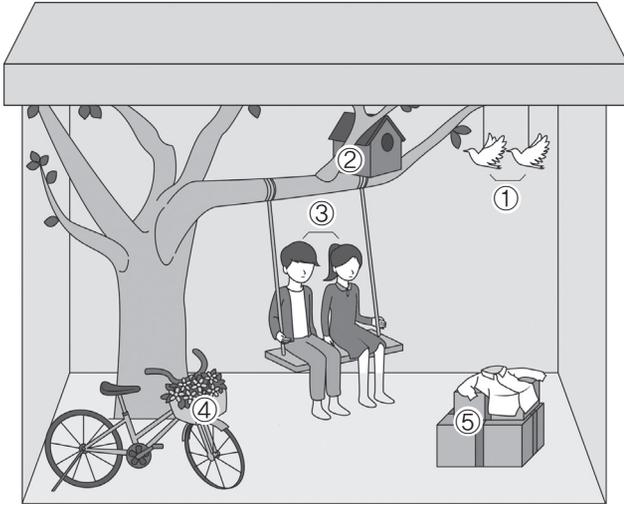
마찬가지로 ①번을 보고 미리 생각을 해. 듣고 있는데 'November'인지 'December'인지 헷갈리면 다른 선택지를 보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봤어. N에 중간 사선을 빼면 11이고, D는 뭔가 1과 2를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지? 이렇게라도 외워두길!

②번에서는 감독인지 배우인지 따져 봐야하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 봐야해. 보편적으로 시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으므로 후자에는 밑줄을 치지 않았어.

③번은 6시'부터'인지 6시'까지'인지 잘 살펴봐야지.

나는 ⑤번에서 '보수'를 출제 포인트로 잡았는데 스크립트에서는 '체육 시설'을 바꿨더라구. 그렇지만 문제를 틀리지는 않았어. 내가 잡은 출제 포인트 이외에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했으니까.

(4) 정답: ④



- ① #두 마리, #천장
- ② #가지 위 새집
- ③ #그네, #소년과 소녀
- ④ #바구니, #꽃
- ⑤ #선물, #와이셔츠

W: Mr. Baker, I finished designing the window display for your children's clothing store.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at my sketch?

M: Sure. Oh, this display seems to represent our brand's theme very well.

W: How do you like the **two birds hanging from the top**?

M: Good. They look like **they're flying toward the birdhouse on the tree branch**.

W: And I placed **two dressed mannequins on the swing**. One is a boy, and the other is a girl.

M: That's nice. Also, I like the idea of putting **a teddy bear in the bicycle basket**.

W: Thanks. Every child loves teddy bears.

M: There's only **one shirt on top of the gift boxes**, though. How about displaying a few more?

W: It might look too messy. That's why I put just one.

M: All right. Let's leave it as it is.

마찬가지로 여자가 두 마리의 새(①번)에 대해 얘기했을 때 바로 ②번으로 넘어갔지? 만약 스크립트가 'they're flying toward the birdhouse on the tree branch'가 아닌 'they're flying away from the birdhouse on the tree branch'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학생들이 이미 새집(②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the birdhouse on the tree branch'만 듣고 맞다하고 넘어갔겠지. 조심하도록!

연습문제 18 해설 (문제 p.146~148)

빠른 정답

- | | | | | | |
|---------|---------|---------|---------|---------|---------|
| (1)-A ① | (2)-A ① | (3)-A ⑤ | (4)-A ④ | (5)-A ③ | (6)-A ② |
| (1)-B ② | (2)-B ③ | (3)-B ③ | (4)-B ③ | (5)-B ③ | (6)-B ③ |

(1) 정답: ① / ②

Are you trying to be a tidy person? It's really difficult to get organized, isn't it? **A simple way to get organized is to remove unnecessary things around you.** For example, when you're facing a desk covered with papers, throw away the unnecessary ones. If you have old toys that your children don't use any more, it is a good idea to donate them to charity. Have you kept a broken lamp for more than six months? Is it fixed? If not, just get rid of it. The same goes for that flower vase in your living room. If it hasn't had flowers for months, give it away. I'm not saying you should throw away everything. You might want to keep some items for old memories. But you should choose those items carefully. So, why don't you look around and see if there's anything you don't need? By removing these unnecessary things, you can keep your stuff organized.

앞부분을 들으면서 P-S 구조란 것을 알아챘다면 여태까지 잘 학습한 거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Ⅲ.미리알기 - 1.말의 목적(주제)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학습하도록 해. S에 해당하는 문장이 당연히 T·S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보통 선택지 순서대로 스크립트가 구성되어 있으니 ①번 papers가 나온 뒤 ③번 toys가 나왔을 때 답이 ②번인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출제자가 순서를 바꿔서 낼 가능성도 0%가 아니니 끝까지 듣는 걸 추천해.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flower vase'가 나왔을 때 까지라는 거야. 그 다음 문장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